

3. 중앙중학교 시절 (1934~1939)

1934년(13세) 3월 19일 나운영은 미동 보통학교를 졸업¹⁰⁾하고 4월 1일 중앙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때 중학교는 1학년에만 음악시간이 있었는데, 운 좋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봉선화」의 작사자이자 코넷(트럼펫의 일종)의 명수요, 테너 독창자요, 작사·작곡에 능하셨고 특히 브라스 밴드 지도자로도 맹활약을 하셨던 김형준(金亨俊, 1884~1950)선생이 음악을 지도하여 주셨다. 김형준 선생은 현제명 작곡의 예술가곡 「오라!」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곡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한다.

1935년(14세) 12월 8일 어릴 때부터 잘 불던 하모니카 실력을 살려 김생봉(金生峰)선생이 지휘하는 **알파 하모니카 밴드 제2회 연주회에 출연하였다.**



1936년(15세) 중학교 3학년 때 「누가 누가 잠자나」, 「산바람 강바람」, 「태극기」 등의 동요를 작곡하신 박태현(朴泰鉉, 1907~1993)선생님이 밴드부 코치로 오셔서 밴드지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트럼본도 불고 바리톤 색스폰도 불다가 큰북을 쳤고, 부지휘자를 거쳐 지휘자가 되었다.



[뒷줄 시계 아래 서 있는 학생이 나운영, 뒷줄 오른쪽 교사가 박태현 선생.]

10) 미동 보통학교 제19회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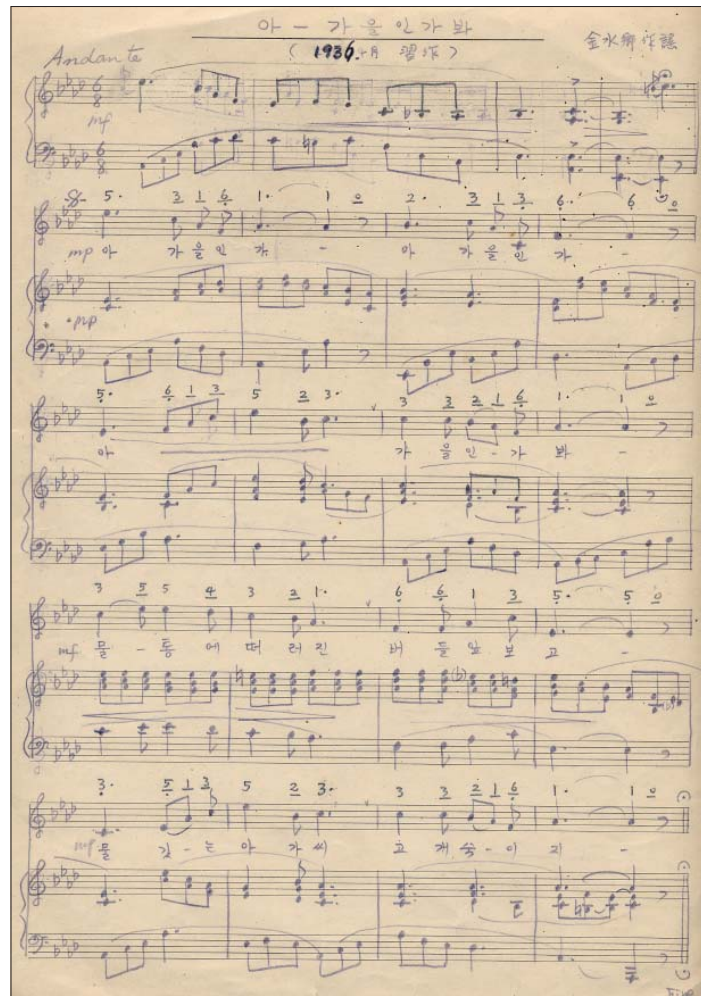
나운영은 중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꼭 음악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브라스밴드에 들어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실제로 악기를 다루다보니 어느덧 음악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8월 9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세계제패를 했다는 신문 호외를 읽어 본 나운영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나라는 없어도 개인이 우수하면 민족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음악을 통해서, 작곡을 통해서, 손기정 선수처럼 민족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곡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나운영은 중학교 3학년인 1936년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가곡 「아! 가을인가」 (김수향 작시)를 작곡하였다.

그런데 이 「아! 가을인가」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서점에서 「아! 가을인가」가 출판된 악보들을 보면 어떤 악보는 작사자가 김수향으로, 또 어떤 악보는 김수경 또는 나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운영의 자필 악보를 보면 작사자가 김수향(金水郷)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는 분단된 나라의 아픈 사연이 함께 한다.



[악보의 숫자는 하모니카 악보, 습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아! 가을인가」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김수향 작시로 되어 있는 것은 김수향(金水鄉)이 필명(筆名)이기 때문이다. 김수향의 본명은 윤복진(尹福鎭, 1908~1991)으로서 북한에서 활동한 아동문학가였다. 종전(終戰) 이후에는 월북작가의 작품은 방송이나 출판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 가을인가」는 월북작가 윤복진이 아니라 김수향 작사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 가을인가」의 작사자가 동일인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다. 나운영은 피를 내어 김수향(金水鄉)을 김수경(金水卿)으로 바꾸어 제출한다. 얼핏 한문만 보면 향(鄉)과 경(卿)이 같은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므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았다.

이 상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무사히 넘어가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것을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운영은 이미 너무도 널리 알려진 「아! 가을인가」가 묻혀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직접 개사를하기로 마음 먹고 원래 가사의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만 살리고 아랫단을 1,2절로 나누어 나운영이 직접 작사를 한다. 지금이야 월북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해금(解禁)되어 아무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았다.

〈김수향 시〉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
물통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걷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

〈나운영 개사〉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
1. 둥근 달이 고요히 창을 비추면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봐
2. 가랑잎이 우수수 떨어지며는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봐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정겹게 들려오는 이 「아! 가을인가」에 대해 나운영은 습작(習作)이나 다름없었던 이 곡이 이렇게 계속 사랑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고 하였다.

1939년(18세) 3월 4일 **중앙중학교(5년제)**를 7회 졸업생으로 졸업할 때, 졸업생 환송음악회에서 김영환(金永煥, 1893~1976) 선생님이 작곡하신 교가를 중간 트리오 부분에 넣어 행진곡으로 만든 「March Choong-Ang」(브라스밴드 곡)을 작곡하여 직접 지휘하였고, 남성4중창에서 제1베이스를 노래하였다.¹¹⁾

11)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40쪽



[맨 앞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학생이 나운영.]

나운영은 미동보통학교에 이어 중앙중학교 시절에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중앙중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으로는 현상윤(玄相允, 고대 총장 역임), 학감에 변영태(下榮泰, 외무장관 역임), 은사로는 김형준(金亨俊, 양악수입기의 3대 공로자의 한 분), 박태현(朴泰鉉, 작곡가), 김상기, 이상훈(李常薰, 서울대 상대 학장 역임), 안재준(서울대학장 역임), 이종우(홍익대학장 역임), 최복현(崔福鉉, 서울시 교육감 역임), 이운재(李允宰, 한글학자) 등등 쟁쟁한 인사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¹²⁾

특히 박태현 선생과는 평생 동안 사제지간으로서, 동료로서, 벗으로서 교제를 계속하였는데, 나운영이 소천을 한 바로 그 날도 박태현 선생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중앙중학교 시절 나운영은 음악시간에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과 후 몰래 음악실에 들어가 오르간 연습을 하였고, 그러다 숙직 선생님에게 들켜서 혼이 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나운영은 개인연습과 함께 음악을 듣기 위해 돌체(Dolce)다방의 전신前身인 경성다방에 드나들면서 특히 비제의 모음곡 「아름다운 페르트의 아가씨」, 볼프 페라리의 「성모의 보석 간주곡」을 비롯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6번」을 열심히 들었다.¹³⁾

12)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42쪽

13)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45쪽

또한 나운영은 음악책이나 악보를 사기 위해 전차 회수권을 사라고 받은 돈 1원 50전을 쓰지 않고 서대문 밖 천연동에서 측우소 고개를 넘어 중앙청 앞을 지나 계동 막바지까지를 걸어 다녔다.¹⁴⁾ 그다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나운영은 음악책과 악보를 사기 위해 이렇게 5년간을 한결같이 걸어 다니며 개근을 한 성실한 학생이었다.

12월 3일 나운영은 예술가곡 「가려나」 (김안서 시)를 작곡하여 31일 동아일보 주최 신춘 현상 문예 작곡 부문에 응모하였는데, 이 곡이 당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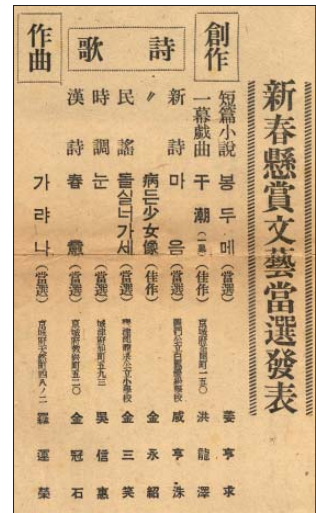
「가려나」는 안서(岸曙) 김억(金億)이 지은 정형시로서 사랑하는 이가 말없이 떠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끝없는 구름길 어디로 향하고/ 그대는 가려나 가려나
가없는 바다의 외로운 배처럼/ 어디로 뜨려나 뜨려나…’

이 시는 원래 4절인데 1,2절은 같은 것을 반복하고 3절만 다르게 작곡했고, 4절 끝부분인 ‘맘 만이 아파라, 아파라(5소절)’는 개작(改作)을 한 것이다.

나운영이 시상식에 갔을 때 당시 동아일보 학예부장이던 이하운씨가 “네가 정말 나운영이냐?” 하면서 무척 놀라워했다고 한다. 뺨뺨머리 중학생이 수상자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⁵⁾

당시 동아일보에는 한면 전체에 심사위원의 심사소감과 함께 작곡 당선자인 나운영의 당선소감을 소개하였다.¹⁶⁾



신춘현상작곡선후감(新春懸賞作曲選後感) 일선자(一選者)

작곡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그 성과 여하에 대하여는 적잖은 주목과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응모된 작품 50여곡중 그 7,8할까지가 소위 유행가의 모방에 불과했고 나머지 10여편이 예술적 가요곡의 부문에 속하게된바 이 근소한 작품 중에는 가히 괄목할만한 것이 4,5편 잇었음을 선자(選者)는 못내 기뻐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선작인 나운영 군의 작품을 제하고도 이석희 군의 소품 3곡을 비롯하여 김형래, 김순애, 권영호 군 등의 작품들은 모두 입상하기에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군의 작품 3편은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마는 선율에 너무 치중한 혐(嫌)이 불무한 동시에 미국식 가요곡의 냄새가 농후했고, 따라서 독창성이 부족했음이 옥에 티와 같

14)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40쪽,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57쪽

15) '나의 어머니를 말한다' <꿈나라 1980년 12월호>

16) 심사위원의 심사소감: 동아일보 소화 15년(1939년) 1월 26일자 기사

왔고, 김형래 군의 작품 2편은 그 외형이 제법 큰데 비해서는 내용이 너무 공허했으니 첫째 백수십소절이나되는 가곡에 있어서 중간에 1,2회쯤의 전조는 있음즉하것만도 자초지종 기본조로 일관했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했다. 그러나 별로히 화성학적 위법이나 무리가 없이 전체를 구성한 점은 놀랄만했다. (중략)

이 중에서 당선작인 나군의 작품은 역시 습작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수법이 예술적 가요곡에 가장 가까웠고 곡 전체의 균제된 점에 있어서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곡은 소품에 지나지 안했지만 가장만이 노력한 흔적이 보인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관되지못한 가작 중에서 이석희 군의 작품은 그 세련된 점에 있어서는 출중했다고도 할수있었다. 오직 모방을 떠나서 좀더 개성을 나타낼수만 있다면 그는 장래에 반드시 성공할것을 의심치 않는다.

작곡전공의길에- 작곡당선자 나운영군 담

중학2학년때부터 음악(피아노와 작곡)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작년 봄에 중학을 졸업하고서야 비로소 여기 전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년동안 김성태 선생의 지도하에 작곡을 연구했으며 귀사 음악제에서도 큰감동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작곡 현상은 조선에서 처음보는 시험으로 만흔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응모하기까지에는 은사 박태현 선생과 신남철 선생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춘(今春)에 동경음악학교에 입학코저 준비중이며 이 기회에 힘을 얻어 단연 작곡 전공의 길에 들어서고저합니다.

서양음악연구의 완벽을 기다려 장차 동양음악에 관해서도 깊이 알아보고저하오며 지금까지엔 베토벤의 작곡 태도에 큰 매력을 느끼고있다고할까요. 성격상 그를 본바들 생각이 만습니다.

이번에 안서 선생의 시를 택한 것은 저같은 초보인의 가장 해석하기 평이한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를 더욱 연구해서 작곡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나운영은 다음 해 1월 홍파동 언덕 위에 있는 아담한 붉은 벽돌 이층 양옥집인 홍난파 선생 댁을 방문했다. 「가려나」 당선 이후에 심사위원장이셨던 선생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간 것이다. 이때 나운영은 선생에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았다.



즉 ‘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공부하여 민족음악을 창조함으로써- 비록 나라는 없으나 손기정 선수처럼 민족의 이름을 온 세계에 빛내라’는 말씀이었다. 나운영은 이에 용기를 얻어 작곡을 전공하기로 한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이후로 홍난파 선생에 대해 극진한 존경과 사랑을 다하게 된다.¹⁷⁾

동아일보 신춘현상 문예에 당선될 당시 나운영의 가족들은 나운영이 음악전공을 하려는 것을 극력

17) 수상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94쪽

말리는 상태였다. 그때만 해도 음악하는 사람을 ‘풍각쟁이’라고 천대하는 고루한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나운영의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고, 경제권을 갖고 있던 큰형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학비를 대줄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나운영의 결심이 너무 확고하고, 막상 동아일보 작곡부문에 당선이 되어 신문에 기사도 실리게 되자 어머니는 물론 집안 어른들도 나운영의 재질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소질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음악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음악 전공을 목표로 하고 학교를 알아보니 국내에 나운영이 다닐 음악학교는 없었다. 여자가 다닐 수 있는 음악학교로는 이화여전이 있었으나 남자가 다닐 음악학교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운영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